

# 부안 하서면 3개 학교 통합 개교

하서초 개교식 개최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  
학교 새 출발 축하



부안 하서면의 하서초, 백련초, 장신초 등 3개 학교 통합 개교 기념식이 24일 하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이원택 국회의원, 권익현 부안군수, 장기선 부안교육장 등이 참석해 하서초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부안 하서면의 하서초, 백련초, 장신초 등 3개 학교 통합 개교 기념식이 24일 하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24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수년 전부터 학생들의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을 논의해 오다 지난달 1일 현 위치(하서면 석불로 88)로 이전에 통합학교로 개교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이원택 국회의원, 권익현 부안군수, 장기선 부안교육장 등이 참석해 하서초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학생들의 식전 풍물놀이 공연으로 시작된 개교식은 학부모와 내빈들의 개교 축하 엽서 쓰기, 학생들의 축하 합창 공연, 개교기념 티셔츠 커팅식 및 하서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특히 하서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신

명나는 부안농악관공을 비롯한 설장구놀이, 버나놀이, 사자놀이, 기 놀이 등이 펼쳐져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길 바라는 모두의 희망을 담아냈다. 이날 교장은 "하서초 어린이들을 위해 디지털 스포츠 시설,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꿈누리실과 워크스페이스가 있는 아름다운 학교가 조성됐다"면서 "올해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부안 하서면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합에 따라 초등 3개교가 통합 학교로 개교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일이 즐겁고, 모둠을 통한 협동학습도 가능해져 활기찬 수업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공학·자연과학 의학 등 세계적 경쟁력 입증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 결과  
5개 대주제 3개 분야 세계 순위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4년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 결과 공학&기술 분야와 생명과학&의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전북대학교 전경

이에 따르면 이 평가에서 전북대는 5개 대주제(예술&인문, 공학&기술, 생활과학&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경영) 중 자연과학 분야가 세계 300위권에 오른 것을 비롯해 공학&기술, 생명과학&의학 분야가 각각 400위권에 랭크됐다.

특히 대주제 5개 분야에서 지난해 2개 분야가 순위권에 올랐던 전북대는 올해 생명과학&의학 분야가 새롭게 진입하면서 분야별 연구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55개 세부 학문 분야 중에 지난해에 이어 11개 학문 분야가 순위권에 오르며 거점국립대학교 중 3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재료과학과 화학공학, 환경과학, 생명과학, 화학 등 5개 분야는 국가 거점국립대 중 1위에 올랐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새롭게 세계 순위권에 진입한 학

문 분야가 도출되는 등 전북대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전북대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더욱 힘써 임기 중 최소 5개 이상의 학문 분야가 세계 1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평가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세계 1,561개 대학의 학문 분야를 5개의 대주제, 55개의 세부 분야로 나눠 학계평판과 기업계평판, 논문당 인용수,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H-INDEX, 해외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IRN 등 5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것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2024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개최

전주대학교 입학처는 지난 20일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2024년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수험생, 교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대입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의 핵심(대학교 최승후 교사),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의 핵심(소명영고수석 교사),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입시 지원 전략(제일고 임병훈 교사)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강연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7월 8일까지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진학지도'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25개 고교 대상... 경희대 등 서울 주요 9개 대학 입학사정관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7월 18일까지 도내 25개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진학지도 완전정복(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가장 호응이 좋았던 '서울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의 만남'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사례 등의 진학 정보를 보다 많은 교사와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고교 진학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는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 교육과정과 학생부를 컨설팅하고, 특강도 실시한다. 특히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

앙대, 한양대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지역 9개 대학 입학사정관과 공공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한다.

1부는 컨설팅 형식으로 해당 고등학교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생부를 확인하고,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진학지도와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

2부는 특강 형식으로 대입전형별 평가 방법과 진학지도 방안을 전달한다. 특강은 학교의 모든 교사가 참여하며, 1부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한 대입전형별 평가 방법과 이에 따른 고등학교의 진학지도 방안을 설명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생 선호 대학 입학사정관과 교사들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5월 서울대를 시작으로 주요 수도권 대학들이 적어도 1반씩은 전북 지역의 교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 전북지역 대학과의 만남도 준비돼 있다. 6월 15일 전북지역 주요 6개 대학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교사들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와 간담회를 갖는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이라며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통해 직접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알게 된다면 그에 맞는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산학협력 정보담당자 성과공유회

전주기전대학 LINC3.0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23일 산학협력정보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제1차 산학협력정보담당자 성과공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2차년도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통해 성과 창출 고도화를 목적으로 LINC3.0사업에 참여 중인 전주기전대학의 산학협력정보담당자들의 사업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LINC 3.0 가치창출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구동력 확보와 산학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2차년도 사업성과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 3차년도 학과별 발전방안 및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 설명회

총 83개 학교 선정... 공모사업 목적·지원 내용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학부모참여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부모가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 학생·교사와 함께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61개교에서 신청, 심사를 통해 83개교를 선정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선정 학교 학부모 및 담당교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참여 공모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박철환 교사의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및 우수사례에 대한 강의로 펼쳐졌다.

인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부모참여 공모사업은 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의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Happy 아이 Net' 권역 대표기관 회의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지난 23일 교육지원청-학교-지역기관을 잇는 네트워크 협력체인 'Happy 아이 Net' 권역 대표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appy 아이 Net'은 전주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의 아동·청소년 교육·문화·복지 관련 기관의 협력체다.

관내 초·중·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와 구청, 행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지역아동센터 및 문화 관련 기관 등 총 12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1개 권역으로 조직해 권역별로 매월 1회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는 11개 권역의 대표기관과 부대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1분기 권역별 운영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권역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교육지원청-학교-지역기관을 잇는 네트워크 협력체인 'Happy 아이 Net' 권역 대표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전주교육지원청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연수를 진행, 통합적 위기 학생 지원 내실화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

김정기 교육장은 "Happy 아이 Net 권역 대표기관 회의가 위기학생을 조

기에 발굴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역량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24일 한별고등학교와 진로 및 특성화 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 진로·특성화 교육지원 체제 구축

우석대, 한별고와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4일 한별고등학교(교장 조성규)와 진로 및 특성화 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별고등학교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조현철 입학처장과 조성규 한별고등학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 지원의 상호 교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협력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협력 △일반고-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류 △양 기관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협력 등이다.

조현철 입학처장은 "한별고등학교와 함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규 교장은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 학생해양수련원,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 마련

수락마을회관 찾아... 청렴미(米)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원장 박영석)은 지난 23일 인근 수락마을회관을 찾아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영석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는 수련활동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학생들의 수련 활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박 원장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치량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대비해 부안군과 협업을 통해 속도제한기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생해양수련원 직원들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청렴미(米)도 전달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주민 김경옥씨는 "학생들의 수련 활동 중에 소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적당한 마을에서 들리는 활기찬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싫지만은 않다"며, 학생들의 수련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역 상생의 문화와 수련원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